

100년 뒤 한국 인구 753만명...소멸 위험 광주·전남 '암울'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인구보고서 생산인구 1명이 노인 1.4명 부양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 절실 목소리

지금과 같은 인구 감소 추세가 이어진다면 100년 후 대한민국은 지금의 15% 수준인 단 753만명만 남고, 청년 1명이 노인 1.4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전국적 인구 위기 속 이미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된 광주시와 전남도의 고빈도 깊어지고 있다.

인구 전문 민간 싱크탱크인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2일 출간한 '2025 인구보고서: 대한민국 인구 대전환이 온다'에서 2025년부터 2125년까지 100년간의 인구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담았다.

출생, 사망, 국제이동 등 변수를 반영한 코호트 요인법을 통해 시나리오별 인구 추세를 제시한 이 보고서는 '대전환'이 아닌 '붕괴' 수준의 인구 감소를 경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극단적인 저위 시나리오 기준 2125년 우리나라 인구는 753만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현재 서울 인구(933만명)보다 적은 수치다. 중위 시나리오도 1115만명, 고위 시나리오조차 현재의 3분의 1 이하인 1573만명에 불과하다.

문제는 이미 인구감소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전남은 소멸 위험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히며, 광주 역시 청년 인구 유출과 저출산으로 위기 신호를 받고 있다. 최근 전남 곳

곳은 소멸위험지수 '주의' 단계를 넘어 '위험' 단계로 분류되기도 했다.

보고서는 2100년이면 생산연령(15~64) 인구 100명이 65세 이상 노인 140명을 부양해야 하는 '역피라미드'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는 100명이 노인 30명을 부양하고 있으나, 인구 피라미드가 '가오리형'을 지나 '코브라형'으로 바뀌며 부양 부담이 폭증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이런 인구 구조 변화는 지역 사회 존립에도 직격탄이다.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도시는 경제 동력을 잃고, 농어촌은 공동화로 붕괴할 수밖에 없다.

보고서는 2040세대의 결혼과 출산 인식 조사도 병행했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분석한 게시물 6만여건에 따르면 결혼 키워드는 '사랑'보다 '돈', '집'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출산 관련 키워드에서도 '경제적 부담'이 핵심으로 나타났다.

젊은 세대에겐 결혼·출산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는 분석이다.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출산·양육 부담 완화,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 청년 연장, 이민정책 개편 등을 핵심 대응 방향으로 제안하며, 인구 감소 시대를 버텨낼 '생산성 중심 경제구조'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방정부와 지역사회 역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숫자보다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김영록 전남지사가 2일 나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서 열린 '한국가속기 및 플라즈마 연구협회·한국물리학회 플라즈마 분과 정기 학술대회'에 참석해 주요 내빈들과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김영록 지사 "서남권 인구 50만 혁신성장벨트 속도감 있게 추진"

광양·순천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 조성 등 미래발전 핵심과제 해결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일 "서남권 인구 50만 혁신성장벨트와 광양만권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 조성 등 미래발전 핵심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자"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왕인실에서 정례 회의를 열고 "민선 8기 마지막 1년은 도민들과의 약속을 성과로 이뤄야 하는 시점"이라며 "새 정부의 빠른 추진속도에 맞춰 핵심과제 실현에 속도는 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 대통령이 취임 불과 22일만에 광주·전남을 찾아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문제 해결에 나서는 등 호남에 큰 관심을 보여 주고 있다면서 서전남도도 새 정부 기조에 맞춰 지역 핵심과제에 해결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김 지사는 실제 지난 1일 대통령실과 국정기획위원회 등을 잇따라 방문해 전남 미래발전을 위한 주요 핵심과제를 건의한 바 있다. 김 지사는 "현재 전남의 미래발전 핵심과제들이

새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되도록 의견을 교환하는 단계다. 대통령께서 나중에 크게 발표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대통령께서는 한다면 하는 분이고 일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성격이다. 이 과제들이 잘 되면 전남은 현재 180만 명인 인구가 200만 명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지사는 아울러 최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며 여수석유화학산단의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예산 추가 확보와 SOC 사업 예산 추가 확보를 강조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대자보 도시, 광주' 시각화...정책브랜드 디자인

홍보물·굿즈·안내판 등 적극 활용

광주시가 시민들의 공감대를 이끌기 위해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도시' 정책을 이미지 브랜드화 했다.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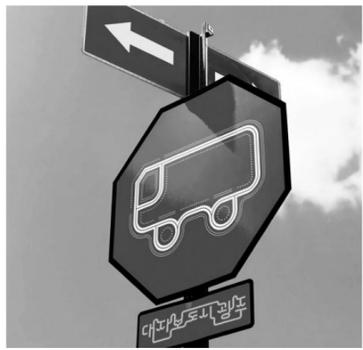
2일 광주시에 따르면 기후위기 대응과 사람중심 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민선8기 핵심 정책인 '대자보 도시, 광주' 정책을 브랜드화하기 위해 개발한 디자인 시스템을 공개했다.

'대자보 도시 광주'를 직관적으로 시각화해 홍보에 활용하기 위해 진행되는 이번 정책 브랜드화는 광주시에서는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대자보 도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승용차 위주의 교통체계에서 벗어나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중심의 도시 구조로 전환을 꾀하는 광주시의 대표 정책이다.

이번 브랜드화 디자인은 '길'을 모티브로, 대중교통·자전거·도보 3가지 이동방식을 각기 다른 형태의 '선'으로 시각화했다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이용자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두어블(do-able) 모듈 시스템'으로 개발돼 시민과 사업부서, 유관기관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시는 브랜드의 활용 매뉴얼도 마련해 정책 확산과 교육, 실천사업 등에 유연하게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박광석 대변인은 "이번 정책브랜드는 단순한 문구 위주 홍보가 아닌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이미지로 전달해 시민의 공감을 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에 브랜드화된 이미지를 시청 홍보물, 굿즈, 교통시설 안내판 등에 적극 활용해 대자보 전환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으로 골목경제 살린다

하반기 500억 규모...대출 한도 업체당 최대 5000만원

광주시가 민생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자금난 해소를 위해 7월부터 5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특례보증으로 푼다. 올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규모는 17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다. 지난 1월부터 상반기 특례보증 1200억원을 시행했으며, 하반기에는 500억원 규모를 추가 시행하는 것이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대 5000만원이며, 특례보증 운영 기간은 보증한도 소진일 때까지이다. 대출자에게 1년간 이차보전은 일반신용자 3%, 중·신용자 4%로 각각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유용·도박·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광주지역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전 업종이다.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심사나 보증을 통해 담보 없이 융자받을 수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대출은 상환방법(일시상환, 1년 거주 2·4·6년 분할 상환)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대출금리는 변동금리로 단기코팩스+1.5~1.6% 또는 CD금리(91일)+1.5~1.6%이며, 보증수수료는 연 0.7%이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희망자는 광주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예약한 후, 예약 날짜에 해당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주최의 경제장업국장은 "경제자금난을 겪고있는 소상공인들이 특례보증 시행으로 대출금 이차 부담을 덜기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골목상권 회복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역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현장밀착형 정책 추진의 구심점인 '골목경제 상황실'을 가동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국산 K2 전차 폴란드 2차 수출

사상 최대...8조 8000억원 규모

국산 K2 전차의 폴란드 2차 수출 계약이 확정됐다. 2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이날(현지시간) 폴란드에서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아-카미슈 국방부장관과 K2 제작업체 현대로템이 K2 전차 2차 계약 협상을 완료했다.

구체적 계약 규모는 폴란드 측 요청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2차 계약이 K2 전차 180대도 65억 달러(약 8조 8000억원) 규모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개별 방산 수출계약으로는 사상 최대이며,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진행되는 대형 방산 수출이다. 한국과 폴란드는 별도의 계약 체결식을 양국 정부 고위급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할 예정이다. 2차 물량 180대 중 117대는 현대로템이 생산해 공급하고, K2PL 63대는 폴란드 업체 PGZ가 현지 생산할 예정이다. 2차 계약은 1차 계약과 전차 대수는 같아도 액수가 1차 때의 약 4조 5000억 원보다 훨씬 커졌다. /연합뉴스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망 이갑식(740705-1XXXXXX)
• 최후주사: 광주 북구 하서로466번길 79, 302호(본촌동)
피상속인 망 이갑식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시가 정법원 2025년590호로 신청하여 2025년 6월 26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와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7월 3일
• 상속인: 이문신(440916-1XXXXXX) 광주 북구 동문대로111번길 39 (우산동)
• 신고기간: 2025. 7. 3. ~ 2025. 9. 12.
• 채권신고처: 상속인 이문신의 주소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망 최석희(670316-1XXXXXX)
• 최후주사: 광주 북구 김척길 58, 205호(우산동)
피상속인 망 최석희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시가 정법원 2025년591호로 신청하여 2025년 6월 26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와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7월 3일
• 상속인: 1. 최진수(931029-1XXXXXX) 광주 북구 양산대로 110, 102동 309호 (연제동, 연제주공아파트) 2. 최서원(950607-2XXXXXX) 서울 금천구 뚝방로26길 7, 606호 (가산동, UCL)
• 신고기간: 2025. 7. 3. ~ 2025. 9. 12.
• 채권신고장소: 상속인 1. 최진수의 주소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권리사 가 직접 관리합니다.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 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

해산 및 채권제출 공고(1차)

당 회사는 2025년 06월 27일 주주총회의 서면결의에 의해 해산을 결의하고 현재 청산절차를 진행 중인 바, 당 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분은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그 채권권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간 내 채권신고가 없는 경우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3일
주식회사 사연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동길3번길 31, 105동 2002호(지족동, 광산엘리제)
청산인 김병우

73년을 밝히려는 호남언론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와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光州日報

• 지역내선 •
북 구 • 통 권 266-1920 • 문 통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 안 222-8171
• 양 산 571-7658 • 오 치 266-7801
• 용 통 433-1503 • 우 산 433-1503
동 구 • 남 광 673-6836 • 동 명 222-9054
• 동 부 225-6001 • 중 양 222-9054
• 중 정 222-8171
남 구 • 남 부 673-6836 • 백 문 651-1833
• 동 선 673-6836 • 송 하 675-6605
• 진 명 671-7276
서 구 • 광 천 382-5788 • 신 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문 천 376-7153
• 치 평 376-6511 • 통 암 603-0311
• 화 정 369-1625
광산구 • 문 남 952-1687 • 월 곡 959-1920
• 청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선 944-0444

kwangju.co.kr
光州日報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062.227-9600